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고 개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기념 행사가 10일 오후 여수진남경기장에서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등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린다. /여수=김지수기자 jeans@kwangju.co.kr

빛속 박람회 성공개최 시민 한마음

D-365일 기념행사... 김총리 내일 여수서 지원위원회

1년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불 조성 및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박준영 도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등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D-365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람회 개막 1년을 앞두고 개최 분위기를 띄우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역민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수엑

스포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염원의 불'점화식 및 인기가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 12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부 부처 장관과 전남지사, 여수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10차 정부지원위원회'가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여수박람회 직접 시설의 설치와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안)과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안)등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관 방송사

인 KBS도 박람회 개막 1년을 앞두고 여수 쇼호 요트 경기장에 특별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남해안,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와 개최 의미, 파급 효과, 성공 개최 조건 등을 심층 분석하는 '특집 뉴스9'을 방송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상 스튜디오를 활용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1년 뒤 위용을 드러낼 전시관과 각종 볼거리를 생생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 특강을 할 예정이다.

/여수=김지수기자 dok2000@

1년 남은 여수세계박람회

교통·숙박·홍보대책

800만 이용 교통망 혼잡 줄이기 '올인'

여수세계박람회는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여수라는 이름 두 글자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여수와 전남의 잠재적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세계 5대 해양 선진국으로 도약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0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인의 잔치인 만큼 잘 치러내기 위한 준비는 필수다.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숙박, 교통, 홍보 대책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하다.

우선 4차로인 국도 17호선이 유일한 여수의 열악한 교통난 해소가 관건이다. 전남도와 조직위측은 박람회 기간 중 하루 최대 관람객이 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시시설이 들어선 신항 일대 박람회장(25만㎡)규모를 고려하면 인파와 차량이 때밀러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원활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교통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박람회 교통망 해소를 위해 10조 3774억원을 투입, 대회 개최 전까지 17개의 SOC 사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쏟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미 지난해까지 7조 4285억원을 쏟아부었고 올해도 1

9월부터 KTX 운행... 수도권과 3시간대 연결

국내외 인지도 아직도 낮아 맞춤형 전략 필요

조3279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관람객을 위해 완주~순천(118km)간을, 전라권 관람객을 위해 목포~광양(101.1km)간을 각각 건설해 여기에서 자동차 전용도로(15.1km)를 거쳐 박람회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영남권에서 유입되는 관람객들은 이순신대교를 거쳐 여수산단 진입도로(9.6km)를 통해 박람회장으로 유입할 계획이다.

박람회장과 가장 가까운 접근할 수 있는 서울~여수간 KTX도 오는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제주·부산·통영·하동에서 박람회장간 연안 항로 및 중·일본간 국제 페리도 개설해 관람객들을 실어 나르기로 했다.

박람회조직위와 전남도는 기간 교통망이 계획대로 확충되면 박람회 기간 중 여수시와 수도권은 3시간대, 부산은 2시간대, 목포는 1시

간30분대로 접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박람회 행사 기간 중 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버스타미널~박람회장 구간 확장(2.86km·396억) 공사는 현재 착공한 것을 뿐 국비(100억원) 일부가 여전히 미확보된 상태고 미개통 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석창교차로 입체화사업(220억)도 여지껏 국비 60억원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 기간 내 하루 숙박 수요(2만7877실)중 내년까지 8835실(31.7%)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급숙박시설도 필요한 1만1000실 가운데 여수에 대명VIP 호텔과 오션리조트, 경도해양관광단지 숙박시설 등을 건립해 1896실을 확보하는 한편, 여수 주변 1~2시간 거리의 호텔·콘도 등을 관광자원과

연계해 숙박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여수시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남는' 행사로 기록되려면 홍보 대책도 보완해야 한다. 박람회조직위가 조사한 '2차 관람객 수요조사 결과' 인지도는 34.8%로 1차때(28.9%)에 견줘 5.9%포인트 상승했지만 비슷한 시기의 대전박람회(약 76%)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39세 청·장년층 인지도가 평균(34.8%)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22.4%에 불과, 홍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이를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역별·타깃별 맞춤형 홍보 및 온·오프라인 양방향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 상설 홍보관을 확대하고 해외 여행사·문화원·관광공사 지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젊은층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과 수확여행, 1일 체험학습 등 차별화해 홍보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5·18 정신' 세계로 확산되나

민주화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영국 총회서 25일 결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일 '유네스코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세계 각국이 신청한 59건에 대한 등재 여부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맨체스터에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지난 2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위원회 2차 심사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서 각국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등재 여부를 심해 84건 중 25건을 제외한 바 있다.

유네스코 측에 제출된 자료는 정부·전남도청·광주시청·광주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 등 25건, 군사법기관 재판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등 5건,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선언문·취재수첩·일기 등 21건, 사진자료와 필름 3750점 등이다.

또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1만 2766장,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회의록 3권,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3880권,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3471페이지 등 방대한 기록물들이다.

이들 자료는 5·18의 초기 전개 과정과 흐름이 잘 나타나 있으며, 구술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증언 및 연구내용과 일치해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내 기록 유산은 동의보감,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 모두 7건이며 현대사 기록물로 등재가 신청되기는 이번 5·18 관련 자료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슨 해먼 유네스코 총회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22일 첫날은 개회식, 26일 마지막날은 폐회식이기 때문에 등재 결정은 2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등재가 성사되면 인권, 정의로 귀결되는 5·18 정신과 역사성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광주시 서구 삼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등재를 신청한 일기와 선언문, 기자들의 사진 자료,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등의 일부를 일련에 공개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빛의만평

-김중두



그런데 변하는게 뭐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을 검색하세요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8-10 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특특제 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제조방법)특수 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몸중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붕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검색번호: 121-50000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상욱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원치,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옫나무 진액 참옫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옫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옫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옻으로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옫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옫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옫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